

# 2017

학습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참가팀  
 -2017학년도 1학기 리딩리더스

팀명	학습구성원	학과
임옥정 문학단	옥주영	융합경영학과
	임아름	
	정혜리	
독보적(독서하는 보건)	김정	보건복지정보학과
	김지영	
	김희나	
	이푸름	
이홍	이유진	간호학과
	홍예은	
알로하	김나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강승지	
유자차	서하영	보건복지정보학과
	장예은	
독서에 미치	이승연	미술치료학과
	선혜경	
	성정민	
현름	이아름	간호학과
	홍승현	
듬뿍(book)담뿍(book)	전지운	융합경영학과
	박태영	
	박성일	
	강민수	
	김진원	
영채은	김채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채은	
20:20(하루 20분 독서로 20살을 바꾸자)	박소희	간호학과
	민정현	

참가팀  
-2017학년도 1학기 전공튜터링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버물리	물리약학(약품물리화학1)	안성현
		임수환
		오해준
		신기웅
		조석진
		김정대
의약품을 찾아서	바이오 의약품학	박정원
		김동강
바이오스터디스	유기화학	김예준
		정주윤
화학종조	일반화학	서지윤
		송형규
		조현용
타조	영상커뮤니케이션	한상연
		신수진
		우정용
		장누리
보산 취업동아리 - 공공기관부	보건의료정책관리 1	김현정
		김민지
		김태호
		박현식
		임인식
		배은서
		백주은
		오성경
		이서현
		함영원
멘love	보건의료산업소개	민유정
		박재연
		김채은
꿀chemi	일반화학 1	성예진
		이지원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딱따구리	일반생물학	김지광
		장정화
		안우정
		황유정
지방이들	일반생물학	문혜민
		성해원
		이가은
		노경은

참가팀  
-2017학년도 1학기 비교과 스터디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언론고시반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취업	강승지 김미진 한상연
야망덩어리	취업	김민지 정수미 황지수 김은우 유병규 김아름 백수은 신경림
차콜		박한솔 김나연 김다연 박솔아 배윤지 송지연 한건희 홍태경
Cheer Up!	토익	문현이 신효빈
할리스(hollys)		장인경 심은조
토익 800반	토익	채정아 박정원
더함(더불어 함께) 1	공모전	김동강 김다해 김수민 정경희 신은지
더함(더불어 함께) 2	공모전	임소연 강선주 전정연 곽재인
더함(더불어 함께) 3	공모전	이연경 성정민 나연지 김규리 강혜정 황진아 김채화 이가은 김예은

2017학년도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학습소모임 활동 사례집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보산 뉴스레터팀 A팀		김현정
		최성운
		이서현
		조효선
		이영인
보산 뉴스레터팀 B팀		김태호
		김도희
		오성경
		김현진
		권민혁
보건한국사	한국사	이서영
		박주연
		박현정
		문지희
		신연주
S-TEPS(스텝스)	공인영어	박종영
		임채영
		이동주
		여준호
유자차	토익, 한국사	서하영
		장애은
History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아현
		박수진
		한미영
		김선영
합격기원	컴활필기	정다희
		한유정
900+	토익	김지영
		김지훈
SGwannabe	일반 생물학	이시원
		김현민
		양은서
		조윤주
바들이들	유기화학	송동욱
		임준우
		이태환
토익 함 찢어보자	토익	박영빈
		김도훈
		김윤희
		김택민
		백대현
보건 990	토익	신혜원
		홍리나
		박인선
		백민주
		진효정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코리아우라 만세	비교과	김예진
		신민정
		함새롬
역사를 알아야 내일을 살 수 있다	비교과	김원선
		신현일
동군이만 따라가자!	비교과	신명규
		한보람
역사 알고 뿌리 찾자	비교과	함새롬
		이세은

참가팀  
 -2017학년도 1학기 교과 스터디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Apple Study	생화학 1	류지연 채지수 오현지 유새임 진수연 박희선 김창범
Organic Pharmers	의약품제조화학	유현종 박근영 이소영 이수민 정원천 최지인
생화학짱	생화학	윤하정 박서영 윤민지 공혜진
세포생물학짱	세포생물학	윤하정 최연경 우다연 최유리 조주연
Happylenol(해피레놀)	창업 및 공모전, 마케팅	안성현 김동현 정지혜 이승환 주영석 유지수
CHA MBC(molecular bio class)	분자생물학1	김지광 조찬희 유원동
D.F	식품포장학	김유진 김재형 신현일 정석진
A Mole D	분자생물학	이은주 고소연 조윤희 송디슬
학점깡패	분자생물학/발생학/생리학개론	신효은 이은지 최세영 채하연

2017학년도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학습소모임 활동 사례집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바이오 바이오	세포생물학	김예준 전훈영
바이오14팀	생물 공정 공학 실습	김승미 이지민 임세민
지구의 주인은 미생물	미생물학 1	임수환 오해준 신기웅 조석진 김정대
청운 Biology	일반생물학	김주원 박홍범 황승범 이상희
하이라이트	기본간호학	김예지 김혜진 박지인 최민경 황하은
열매 friends(열심히 매주 공부하는 friends)	nursing process	박수빈 채하늘 김한나
케미 동네	일반화학	조창희 남예림 권기흥 박지은 이경민 박근태
Fairy	생화학	구도희 김진솔 오지수 임희수 조재희
할부타	일반화학, 일반생물	신대웅 황정우 김수완 박종현 이지훈 송인석
평지	일반생물학	김지연 김평화
전공(학점)살리기	건강사정, 기본간호학	이찬미 이혜린
Oral Tester	미생물학 1	김정현 이주현 정지은 홍선기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Neuron	일반생물학	송석중 배형건 박정만 송인석
치명적인 생물	일반생물학 1	김예림 김효정 이상희 임채영 차승규
짜요짜요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조해민 지선영 이동주 홍지현 윤선후 신경민
미생물짱	미생물	임기연 최신예 장은정 김영진 조윤서 최동현
미생바라기	미생물	박수린 윤성은 강예은 장윤지 전소영 최지환
Campbell	일반생물학	권기흥 조현용 김한승 채솔해 배진홍
유기약화학 빠삐	유기약화학	최신예 이희다 구채림 안지은 홍선기 김영진
발달해봄#	발달심리학	유정하 윤혜영
차이파이브	비즈니스 중국어	이승현 유현경 석보라 지혜윤 황다연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이상 심리학 에이플(A+)	이상 심리학	정경희 정유진
눈누난나	심리학	이승연 최선하
차라차차! 일어나라 청춘!	보건학원론, 보건행정론, 사회복지학	이하선 이현경 이송주 백혜원 이성희
미래의 나이팅게일 - 림희름	건강사정	박소희 유세림 이아름
Hestia	회계원리	박태영 강민수 이기영 백종원 전지운
의생짱짱123	세포생물학	김준혁 김준혁 유재인 정지원
57	미생물학	진선민 홍승현 임채현
모나미152	화학	신윤재 박은별 송채은
CHA 오르다	간호학	강수아 강승연 김민지 김수미 황지수
고인물스터디	해부학	김도완 장은정 박성민 홍선기 김수재 윤성은
commuting pharmers	유기 약화학	이동원 김소연 조해함
바돌이들	유기화학	송동욱 임준우 이태환
바이오스터디스	유기화학	김예준 정주윤

# C/O/N/T/E/N/T/S

2017학년도 1학기  
리딩리더스

**1**

**2**

2017학년도 1학기  
전공 튜터링

2017학년도 1학기  
교과/비교과 스터디

**3**

# 2017학년도 1학기 리딩리더스

## I. 리딩리더스 -2017학년도 1학기



### 유자차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주제: 교양 도서

2) 참여자

(1) 서하영 (보건복지행정학과 14), 장예은 (보건의료산업학과 14)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05.25 ~ 2017.06.17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카페, 기숙사

#### 3) 활동 내용

(1) 주제 선정

가. 빅 쇼트

나. 대리사회

다. 인어공주는 왜 왕자를 죽였을까

라. 고아로 태어났지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제인 에어의 성장기

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2편

바. 오리진

사. 미비포유

#### 2. 소모임 성과

(1) 독서감상문

〈빅쇼트 - 보건복지행정학과 서하영〉

평소 경제관련 지식이 많지 않아 경제/주식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마이클 루이스의 '빅쇼트'이라는 책이 흥미로울 것 같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2008년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사태를 주된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 되는 서브 프라임 사태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기에 평소 관심이 있던 사건이었다. 이 책은 ‘미국 부동산 폭락’을 예견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펀드 매니저들의 실화를 통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원인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층(최고다음)용 대출 상품을 말한다. 일반 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로, 일반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채무 이행의 신뢰가 낮고,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이러한 담보 대출은 증권화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지만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6년경 까지 계속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신용평가사에서 이러한 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이 증권은 다른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전 세계에 판매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여름 경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주택버블 붕괴(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이르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보면 CDO(부채 담보부 증권)의 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도 자신의 맡은 임무를 정직하게 임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낮은 등급의 증권임에도 높은 등급을 매기는 등 서브프라임 사태의 혼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미국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게 보여준다.

현재 우리는 금융 강대국이자 모든 방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을 선망하며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며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확신하기보다는 경계심을 가지며 매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은 소수의 금융관리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로 하여금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독점권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인어공주는 왜 왕자를 죽였을까 - 보건의료산업학과 장예은>

이 책은 여성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 책이라 할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성학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던진 책이다. 지금까지 읽어본 여성학 관련 책은 모두 너무 어려웠다. 이 책 또한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나마 중간 중간에 예를 든 우화나 만화 같은 것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 하나의 차별화된 포인트로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사례를 인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작가가 썼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외국에서 전래 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작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준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이 평이하다는 것이다. 성 역할, 가사분담, 여성 노동, 매매춘, 성폭행.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자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나 역시도 필자의 주장엔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소재는 너무 흔하다. 이 책이 교과서라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교과서가 아니라면 이런 흔한 소재에 대한 고찰은 좀 더 자제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를 하는 주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제도이고, 태어날 때부터 여성 차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주입 받은 남성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학은 남자를 깨우쳐야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여성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을 비롯한 여성학이라는 이름의 책들은 너무 어려울 뿐더러,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피해의식이 많은 학문이라는데 일정부분 동의할 수 밖에 없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다 모든 여성들의 한이 새겨져 있다.

이래서는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주류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어느 누가 아무리 현실이라지만 끔찍한 현실에 눈 치켜 뜨고, 내 일도 아닌 것에 적극 나설 것인가? 여성학은 여성에 대한 실체를 좀더 명확히 정의하는 학문이 이었으면 한다.

차라리, 여성의 심리는 이리이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이리이러하니 남성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의식은 자제해야 한다. 논조의 여성학 이었으면 훨씬 지금보다 잘 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이 책은 매우 논리적인 구성이 엿보인다.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도 많이 달았다. 또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예문도 제법 많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읽기가 아직 어렵다는 데 있다. 솔직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학 책을 읽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아쉽다.

### 3. 소모임 소감

#### 1차

남이 망해야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동명의 영화를 보았는데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용어를 찾아 보는 것이 어렵지만 흥미로웠다. 리딩리더스가 아니었으면 읽지 못 했을 책이어서 이번 독서모임으로 읽게 되어 매우 좋았다. 경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반성이 든다.

#### 2차

이 책을 읽고 나도 평소에 내 삶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고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진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들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손님을 놓치고 걸어가다가 대리를 부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도 대리기사다” 라고 말했던 장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해주며 서로 웃다가 울었던 장면이 마음이 찡하고 감동적이었다.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그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존경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3차

사실 여성학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진정한 여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회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여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성만을 위한 편파적인 저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단순히 여성의 편의만을 위하고 편파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무시하거나 크게 개의치 않았던 주변의 생활 속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의 여성들의 다양한 이미지와 권리, 자유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차

제인 에어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약하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여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현재 제인 에어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만 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다.

### 5차

이 책은 전반적으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모든 분야를 연결해서 쉽게 설명한다. 특히 나와 같이 그 분야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는 점이 정말 좋았다. 꼭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책은 한 권이지만 정말 10권을 읽은 것 만큼 방대한 양의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6차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작가는 정말 천재인 것 같다. 1편에 이어 2편까지 어떻게 이 작가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이렇게 재미있게 책을 썼을까? 너무 좋은 책이라 두고두고 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술술 넘어가게 읽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의 유무에 대한 논쟁과 종교적인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 앞으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이런 교양 서적을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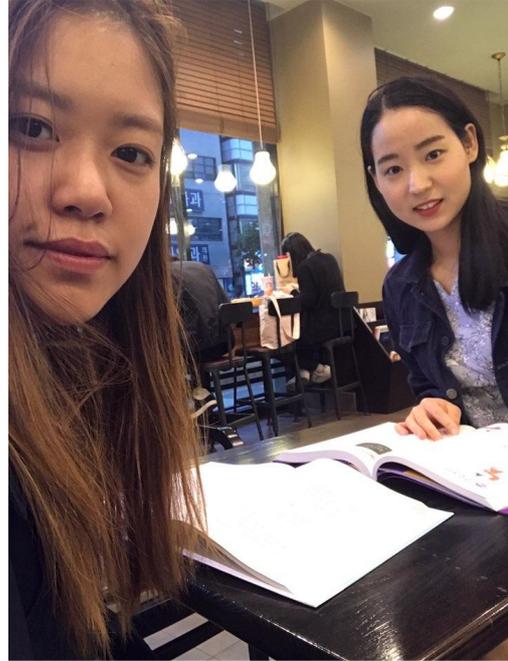
### 7차

우선 나는 이 책을 읽고 삼남매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께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를 품은 엄마가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놀랐고 더불어 우리의 현재 세상이 이전에 비해 편리해지고 위생적인 것 같아도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태아기의 아이에겐 더 위험해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엄마는 내가 태아기일 때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취미를 가졌을지 궁금해졌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 8차

남자 주인공은 결국 존엄사를 택하는데, 본인이 정말로 사랑했던 본인의 삶과 너무 다른 현재가 행복할 수 없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만약 내 주변의 가족이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활동 사진



## 20:20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주제: 교양 도서
- 2) 참여자

(1) 민정현 (간호학과 16), 박소희 (간호학과 16), 유세림 (간호학과 16)

####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04.17 ~ 2017.05.22 (총 11시간)

다. 활동 장소: 카페, 기숙사

### 3) 활동 내용

#### (1) 주제 선정

가.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책을 추천 받은 후 직접 책을 완독하여 느낀 점 공유, 변화된 자신의 마음 가짐에 대해 이야기 하기

나. 호밀밭의 파수꾼: 추천인에게 간략한 줄거리를 듣고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 읽기에 적합한 것 같다.

다. 공중그네: 간호학과인 우리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라.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조원 모두가 간호학파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경험담을 실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책에 있는 팁들을 참고해 소감을 준비하여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한다.

### 2. 소모임 성과

#### (1) 독서감상문

〈스물 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 간호학과 박소희〉

20대의 삶을 바꾸기 위한 첫 책은 바로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다. 20대의 삶의 시작점에서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으로 내가 추천한 책이다. 책은 자전적 에세이로 주인공 이마리의 삶을 다루는 내용이며, 제 1회 일본 감동대상 대상 수상작이다.

우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 하자면, 시작은 이마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한 삶으로 시작된다. 멀쩡한 직장 하나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똥똥한 몸매, 그렇게 믿었던 애인에게 버림받고 친구하나 없던 이마리는 자신의 스물아홉 생일에 자살을 결심하고 칼을 든다. 그러다 죽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절망하다, TV 속 라스베거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다. 바로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은 후 마지막 인생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내고 죽기로. 이런 마음을 먹은 순간 이마리는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간다. 죽기로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인생의 목표가 생기니 용기가 생겼고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책의 절반이상은 이러한 이마리의 과정을 보여준다. 누드모델, 술집 알바와 직장을 병행하며, 이마리는 장기 목표를 위해 세부계획을 짜고 수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성숙해 지고 자신감을 얻으며 전과는 다른 삶을 하나씩 찾아 결국 라스베거스의 거사를 위한 돈을 모아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곳 카지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깨달음을 얻어 자살이 아닌 남은 인생을 멋지고 당당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러한 줄거리 속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이마리를 가장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그것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 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는 문구가 있다. 이는 이마리가 인터넷에서 긴자의 호스티스 클럽을 검색하고 그곳에서 면접을 보고 노력을 하는 전에 없던 적극적인 모습을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도 바로 이것이다. 목표를 잡되,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고 그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면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온다는 것.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를 깨달았고 20대 삶의 시작으로 잡았던 나의 여행과 도전 이라는 목표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심을 키우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고, 대신 부모님께 알바를 하는 것을 허락 받기 위해 알바를 하며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을 줄여 틈틈이 공부를 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리의 20대 인생을 이마리와 같은 도전정신으로 살아 더 멋진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와 조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리딩리더스(2017-1)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 유세림〉

이 책은 저자인 김리연이 뉴욕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에세이다. 김리연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제주도에 있는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그 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사하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뉴욕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입사, 뉴욕에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김리연은 간호사 세계의 태움 문화, 고된 업무와 같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간호사로서의 의미를 찾고, 개인의 행복한 일상을 추구하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 지나온 과정을 책 속의 이야기로 담아냈다. 책은 4개의 큰 주제로 나뉜다. 1부는 ‘꿈꾸는 간호학생’이란 주제로, 미국에 가서 살겠다는 꿈 때문에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저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병원 실습을 거치며 간호사로서의 비전을 가지는 내용이다. 현재 2학년인 간호대 학생으로서 내 상황과 비슷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다. 나는 김리연과 같은 꿈이 있지 않고 간호학과도 원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남짓한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 수능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보지 못해서 주위사람들은 내게 간호학과를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천해주었고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나는 그렇게 간호학과를 오게 되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아슬아슬한 성적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배우며 간호학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허접한 마음가짐으로 4년을 다니고 졸업해서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어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사명감, 열정과 지식도 부족한 나로 인해 피해를 받고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무서웠던 것 같다. 간호사로서의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내게 저자의 글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2부 ‘신규의 기쁨과 슬픔’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합격해 부푼 기대를 안고 상경한 신규 간호사가 바쁜 업무와 3교대 근무, 선배들의 태움으로 받는 고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의 보람을 찾고 환자들에게서 삶을 배우는 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쓰여 있다.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3교대와 태움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막연히 ‘졸업하고 나면 간호사가 되겠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가 되어도 ‘내가 그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1년도 안되어서 그만두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끔씩 든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성격이라 간호사라는 직업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책을 읽으며 ‘내가 더 노력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3부 ‘더 넓은 세상으로’는 삼성병원을 퇴사한 뒤의 도전에 대한 내용이다. 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스트리트 패션’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모델 활동도 하고, 스튜어디스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평소 동경해온 수술실에서 일하고 싶어 삼성병원에 재입사해서 2년의 경력을 추가하고, 미군 간호장교와 인연을 맺어 미군부대 병원 입사를 계획하기도 한다. 간호사로서의 길이 이렇게 다양한지 놀랍기도 하고 저자의 시도와 노력에 존경심이 들기도 했다.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성격이라 무언가 많은 일을 시도해보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저자처럼 유쾌하고 재미있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 그대로 인생은 한번뿐이니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고 시도하는 것이 참신하고 열정이 부럽기도 하다. 4부 ‘나는 뉴욕의 간호사’에서는 뉴욕에 입성한 저자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뉴욕의 대형 병원에 입사하기까지의 이야기와 한국과 다른 미국 의료 현장의 현실과 외국인 간호사로서 겪는 새로운 경험들이 쓰여 있다.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출발해 미국 간호사의 꿈을 이룬 저자가 마냥 대단하게 느껴지고 학벌의 한계를 뛰어넘을만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내가 우리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 하나같이 그게 어디 있는 학교인지 물어보고, 잘 모르는 학교라 당황해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 미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럽고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도 과에도 애정을 가지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그냥 나 자신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좀 더 책의 저자처럼 열정 있는 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중그네 - 민정현〉

책 표지에 등장하는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이라부’이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 마치 공중그네처럼 뛰어든다. 공중그네처럼 뛰어드는 태도는 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한 부분인데, ‘이라부’라는 의사는 매번 저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해결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의 등장 부분이 매우 반갑고 즐겁게 느껴졌다. 책 내용은 총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별로 각각의 대상자가 찾아오고 그들이 이라부 라는 의사를 만나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스토리이다.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환자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뭐 이런 이상한 의사가 다 있는지 실제로 저런 의사가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끝까지 책을 읽어보니 아마 그런 코믹한 부분은 작가의 의도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라부의 의사라는 이미지를 깨부수고 다소 엽기적이고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글에 등장하는 환자들이나 읽는 사람마저도 의사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들, 현대사회가 나온 정신적인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주인공 이라부가 아닌 환자들에게 감정이입이 됨으로써 독자 스스로의 정신적 문제까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은 정신과 의사를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여성들의 우울증도 많고, 청소년의 자살률 또한 매우 심각한데 사회분위기는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을 그저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 3. 소모임 소감

####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뉴욕간호사가 되기 위해 제주도 전문대 졸업이라는 한국 내의 학벌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간 김리연 간호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단한 열정과 추진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 한계에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자학하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높여가는 김리연 간호사를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 공중그네

공중그네라는 책이 작품성이 뛰어나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들 즐거리를 읽어보고 긍정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해주어서 훈훈했다. 주인공은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만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그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준다. 형식적인 의료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고 그들과 웃으며 교감을 하는 모습에 큰 영감을 받았다.

#### 스물 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읽기 전보다 더 재미났다. 우선 책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다. 책에 대해 나는 자서전이라 읽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두 번 읽으니 머뭇거렸던 계획을 다시금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의 명언들을 첫 번째 읽을 때처럼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으면 삶 속에서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

또한, 20대 도전정신을 기르는 것이 책의 목표였는데, 나처럼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현이 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의지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멋진 도전이라고 느꼈다.

####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경험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일상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 2017학년도 1학기 전공 튜터링

## II. 전공 튜터링 -2017학년도 1학기

### 버물리

#### 1. 튜터링 개요

1) 활동 과목: 물리약학

2) 학습 구성원

(1) 튜터: 안성현(약학과14)

(2) 튜티: 임수환(약학과15), 김정대(약학과15), 신기웅(약학과15)  
조석진(약학과15), 오해준(약학과15)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3월 30일 ~ 2017년 6월 12일 (총 12시간)

다. 활동 장소: 교내 강의실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생소한 과목을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며 효율적인 학습법을 익힌다.

(2) 학습 방법

튜터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팁을 받는 방식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마틴의 물리약학 CH.1 & 스터디 OT
2	CH.2 물질의 상태
3	CH.1~2 중간고사 대비
4	CH.3 열역학
5	CH.4 빛
6	CH.5 비전해질 용액



회차

주요 학습 내용

7 CH.6 전해질

8 CH.8 전해질

**활동 소감**

6명 또는 5명이 항상 같이 공부해서 공부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필기를 공유하므로 놓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잘 해결하였으며, 튜터에게서 그림이나 좋은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스터디를 마치고 나서 스터디원들끼리 회식을 하여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밥 먹는 와중에도 튜터의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이 CHA대의 학습지원제도가 좋다는 것을 느꼈다. 그 결과 모두들 스터디를 해서 물리학이 자신감이 생겼다 라는 말을 했었다.

처음 학습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듣고, 여러 명이 스터디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까에 대한 의문이 든 사람도 있었지만, 확실히 동기들과 생소한 과목을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첫날부터 알게 되었다고들 한다. 확실히 스터디를 한 과목이 아닌 과목보다 무언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혼자서 하면 재미없던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적인 면 뿐 만 아니라 동기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더 돈독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터디원 끼리 많은 추억이 생겼다. 스터디원들 대부분 CHA 대의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별로 참여 하지 않았는데, 학습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좋은 점들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학습지원제도에 대해서 다음 학기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약대의 다른 동기들에게도 전하여 긍정적인 효과들을 얻게끔 알릴 예정이다.

2. 활동 사진



## 지방이들

### 1. 튜터링 개요

1) 활동 과목: 물리약학

2) 학습 구성원:

(1) 튜터: 노경은(바이오공학과15)

(2) 튜티: 문혜민(바이오공학과17), 성해원 (바이오공학과17), 이가은(바이오공학과17)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4월 13일 ~ 2017년 6월 11일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현암기념관 차과이어 방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일반생물학 전공과목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모두 A를 받도록 한다

(2) 학습 방법

처음에는 튜티들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후에는 각자 한 단원씩 공부해 와서 모두에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   |   |
|---|---|
| 1 | Biology: Exploring life, The chemical basis of life   |
| 2 | The molecules of life, A tour of the cell,<br>The working cell,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
| 3 | Molecular basis of the gene, How genes are controlled   |
| 4 |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
| 5 | The cellular basis of reproduction and inheritance  |
| 6 | DNA technology and genomics   |



전공 튜터링 (2017-1)

회차	주요 학습 내용
7	Photosynthesis, The cellular basis of reproduction and inheritance, Molecular basis of the gene
8	The cellular basis of reproduction and inheritance, Patterns of inheritance, DNA technology and genomics

### 활동 소감

저희 팀은 서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번이라는 적지 않은 만남 동안 시간에 맞춰서 잘 나오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졌고, 어느 특정 시기에 몰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만나 튜터링을 진행한 만큼 서로 편해지고 친해졌다는 것이 저희 팀의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3학년과 1학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생기고, 튜터링 활동을 통해 튜티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으며, 튜터인 저로서는 우리 과 전공 공부의 기본이 되는 1학년 전공과목을 복습할 수 있었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학기 튜터링 활동 했던 것을 다시 점검하여 다음 학기에 더욱 즐겁고 유용한 튜터링이 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튜티들이 이번 1년간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비롯한 여러 학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그것이 튜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 활동 사진



## 2017학년도 1학기 교과/비교과 스터디

### Ⅲ. 교과/비교과 스터디 -2017학년도 1학기



#### DF (Dons Family)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과목: 식품 포장학
-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원: 김유진 (식품생명공학과 11), 김재형 (식품생명공학과 11)  
신현일 (식품생명공학과 11), 정석진 (식품생명공학과 12)

##### (2) 활동 현황

- 가. 활동 횟수: 총 8회
- 나. 활동 기간: 2017.03.12 ~ 2017.06.21 (총 16시간)
- 다. 활동 장소: 미래관 409호

##### 3) 학습 활동

##### (1) 학습 목표

- 가. 수업 시간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토의하여 해결한다
- 나. 각자 문제 풀이를 한 후 놓친 부분에 대해 담당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학습 효율을 높인다.

##### (2) 학습 방법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각자 문제풀이를 하고 놓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아 학습 효율을 높였다.

#####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
| 1  | 포장학 과제에 대한 고찰 및 풀이   |
| 2  | 포장학 과제에 대한 고찰 및 토의   |
| 3  | 포장학 문제풀이 및 중간고사 대비   |
| 4  | 포장학 문제풀이 및 학문에 대한 고찰 |

5	포장학 시험공부 및 과제 고찰
6	포장학 시험 오답 풀이 및 그에 대한 고찰
7	포장학 과제에 대한 고찰과 풀이
8	포장학에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스터디원간의 토론

① 우선 레이놀즈 식은  $N_{Re} = \frac{Dv\rho}{\mu}$  로 표현한다.

\* 레이놀즈 수(RN : Reynolds Number)

1. 정의: 공기흐름의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크기를 나타냄, 작으면 흐름은 층류가 된다  
 → 관성력이 점성력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or 공기력 현상에 있어서의 동압과 마찰력이 어떤 비로써 작용하는가를 표시하는 수

2. 공식 :  $N_{Re} = \frac{Dv\rho}{\mu} = \frac{\text{밀도} \times \text{속도} \times \text{길이}}{\text{점성계수}}$

3. 임계 레이놀즈수 : 층류가 난류로 바뀔 때 거의 일정한 값에서 바뀌는 공기흐름의 계수

→ 임계 레이놀즈수 : 천이가 일어나는 레이놀즈수 (층류 → 임계 레이놀즈수 → 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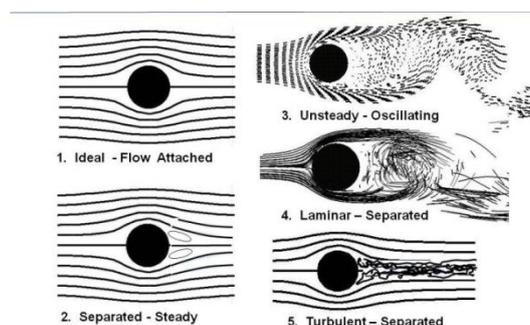
4. 레이놀즈수의 특성 : Rn가 클수록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이 커지며, 표면마찰계수는 감소

\*  $Rn = \infty$  (무한대)로 간다면 점성계수는 '0'에 접근

⇒ 점성효과 없는 이상흐름으로 경계층이 생성되지 않고, 흐름의 분리도 없으며 실속도 일어나지 않는다

\* Rn에 따라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위치, 표면마찰항력, 그리고 경계층의 두께도 달라진다.

레이놀즈수는 유체흐름의 형태를 나타내는 무차원군이다. 여기서 무차원군은 어떤 단위계를 사용하든지 단위만 일관성이 있으면 그 값은 같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은 달라지는데 직선관에서 레이놀즈수가 2100이하이면 흐름은 항상 laminar이고 4000이상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turbulent이다. 그리고 2100~4000일때를 transition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에서는 장치에 따라 층류 또는 난류가 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교란만 있어도 흐름의 양상이 달라진다.



| 교과/비교과 스터디 (2017-1) |

왼쪽 관에 작용하는 압력= $P_1$

오른쪽 관에 작용하는 압력= $P_2$

$P + \Delta P = P_a$   
 $P = P_b$  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1,2의 높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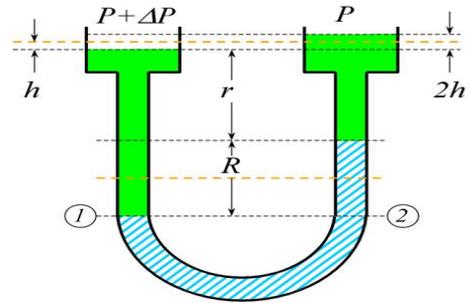
즉  $P_1 = P_2$

$$P_1 = \rho_B \cdot g(r + R) + \rho_C \cdot g \cdot h + P_a$$

$$P_2 = \rho_B \cdot g(2h + r) + P_b + \rho_A \cdot g \cdot R \quad \text{이고}$$

$P_1 = P_2$  에서  $P_a - P_b$ 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면

$$P_a - P_b = g \cdot R(\rho_A - \rho_B) + 2g \cdot h(\rho_B - \rho_C) \quad \text{가 된다.}$$



## 2. 학습소모임 소감

### 정석진

조별로 푼 문제에 대하여 각자 공정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푼 문제에 대한 공정을 설명하고 문제를 같이 고민하였다. 또래 스터디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토의하고 문제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 같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팀 별로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모션이 많을 텐데 또래 스터디를 통하여 그 능력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또래 스터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 김유진

소수로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집중도 잘 되고 하루가 굉장히 뿌듯하다. 문제 해결이 한결 쉬워진다. 교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또래 스터디를 통해 다시금 생각하고 고찰할 수 있어 또래 스터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토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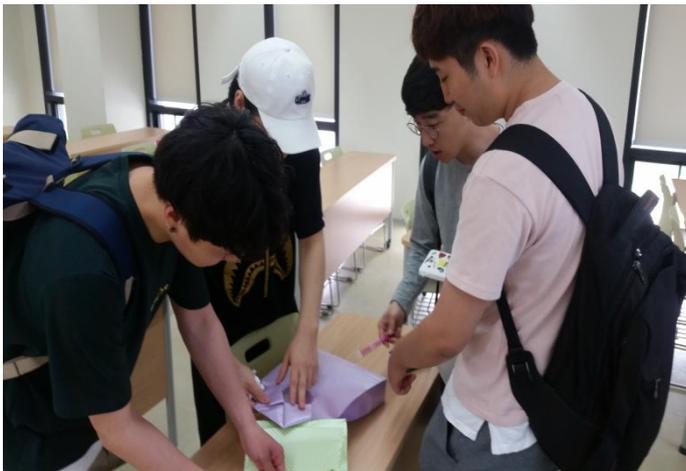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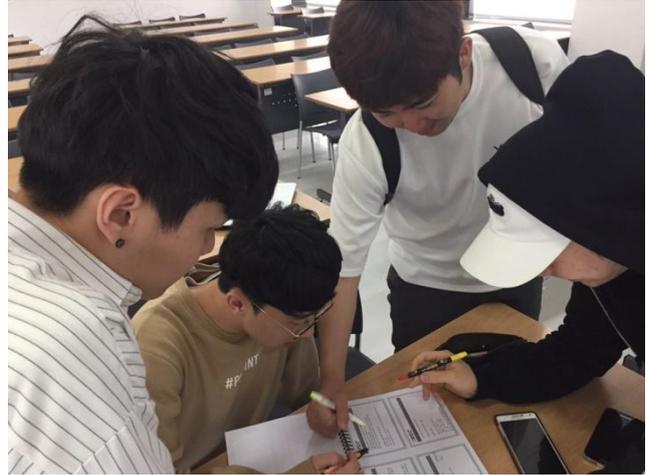
### 신현일

수업시간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잘못된 접근에 대해선 이래서 잘못되었고 올바른 접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래 스터디 안에서 팀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좀 더 논리적인 사고와 접근방식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 김재형

각자의 생각을 토의하고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스터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3. 활동 사진



## 57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미생물학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원: 홍승현, 진선민, 임채현 (간호학과)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3월 31일 ~ 2017년 6월 12일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생활관, 미래관

###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2) 학습 방법

1-3회차 스터디는 하브루타 방식 / 4-8회차 스터디는 질의응답 방식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세 명 모두 문과였고 미생물학이 생소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이 었다. 각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질의응답을 하여 도움을 주고 받는다.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미생물 연구의 태동과 역사, 미생물의 분류
2	Prokaryote와 Eucaryote의 차이점, 미생물의 역할
3	미생물의 구조에 대해 조사 및 토론
4	바이러스의 구조와 일생
5	바이러스의 특징, 감염
6	미생물의 합성, 성장, 발생 그리고 죽음

- 
- |   |                                |
|---|--------------------------------|
| 7 | 박테리아의 호흡과 발효                   |
| 8 | 미생물학의 총 정리와 지난 교과 스터디 활동 되돌아보기 |
- 

## 2. 학습소모임 소감

### 임채현

한 학기의 교과 스터디가 끝났다! 스터디가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귀찮을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했다! 시작한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할 수 밖에 없으니 공부시간이 늘었고 모여서 할 얘기가 있어야만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책임감 덕에 더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도 완벽한 스터디는 아니었으니 앞으로 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

### 진선민

작년에 2학기 때도 교과 스터디에 참여하였는데, 그 때의 추억이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올해도 이렇게 다시 교과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과 다른 점이라면,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5명이 했지만, 이번에는 3명으로 진행하였다. 그래서 각자 멘토 역할을 맡는 횟수가 작년보다는 늘어서 준비하기에 약간 힘든 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멘토 역할을 했던 덕분에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했기에 시험을 공부할 때나, 시험을 볼 때 나에게겐 큰 도움이 되었다.

### 박근영

이번 학기 교과 스터디도 마무리했다. 저번 학기보다 조금 더 바빴던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미생물학이 내용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 다음 교과 스터디를 한다면 좀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동기들과 함께 학습한 내용이 수업 시간에 나오거나 시험에 나올 때 좋았다.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학교를 통해 계속 있었으면 한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다!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 3. 활동 사진





## Commuting pharmerers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과목: 의약품 합성학
-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원: 이동원, 김소연, 조해람 (약학과)

####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6월 12일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과학관

### 3) 학습 활동

#### (1) 학습 목표

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 (2) 학습 방법

서로의 수업 내용 필기 교환 및 수업내용 토의

####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맥머리 9판 19,20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2	맥머리 9판 21,23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3	맥머리 9판 24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4	맥머리 9판 25,26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5	맥머리 9판 27,30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6	맥머리 9판 24-31과에 나오는 주요 반응 정리
7	의약품 합성학
8	의약품 합성학

## 2. 학습소모임 소감

### 전체 소감

처음에는 전공 스터디를 시작할 때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다르게 튜터님이나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으로 깨달은 것은 완벽한 존재 없이도 서로가 서로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 개인의 역량은 아직 미숙하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서로를 가르치며 배워나갈 때, 그러한 단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색광들이 모여서 아주 밝은 하나의 백색광이 되어가듯, 저희의 전공 스터디는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상쇄시켜주는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공 스터디를 통해 각자가 조금이나마 발전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 과목인 유기화학에 대한 배움의 길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배워나가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운 내용,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번 전공 스터디를 통해 얻은 교훈인 '협동'과 그것을 통한 발전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들과 함께 지식을 구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전공 스터디를 통해 얻은 교훈이자, 앞으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손우성 교수님, 항상 저희들의 유기화학의 인도자 역할을 해주시는 김석호 교수님께 마음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3. 활동 사진





## 눈누난나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과목: 심리학의 이해
-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원: 이승연, 최선하, 최영하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4월 13일 ~ 2017년 6월 11일 (총 22시간)

다. 활동 장소: 미래관 강의실, 외부 스터디 카페

### 3) 학습 활동

#### (1) 학습 목표

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 (2) 학습 방법

개별 복습 및 질의 응답

####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심리학개론 0-2단원
2	심리학개론 3-5단원
3	시험범위 총 복습
4	심리학개론 6단원 예습
5	심리학개론 6-8단원
6	미술치료개론 보고서 작성, 심리학개론 9단원
7	심리학개론 10단원
8	총 복습 및 최종점검

## 2. 학습소모임 소감

### 최선하

고등학교 스터디를 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도 스터디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정말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인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고등학교와 다른 대학교 수업방식에 좀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다. 어렵거나 양이 많아 혼자서 소화하기 힘든 내용들도 함께 지적인 힘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어서 내용 이해 및 암기 면에서도 스터디 활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학업적인 관점에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함께 한 스터디원들과 친목도 남들보다 돈독히 쌓을 수 있어서 더욱 스터디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2학기에도 이 멤버 그대로 스터디를 또 하고 싶다! 다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었으면 좋겠고, 한 학기를 함께 스터디 하며 함께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한테 정말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이승연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빠가 대학교에 오면 공부가 어려우니 꼭 친구들과 스터디를 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라고 하셔서 신청하게 되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다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다. 우선 스터디를 하게 되니 주말엔 나오지도 않는데 밖에 나와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집순이 탈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친구들과 같이 만나 얘기도 하고 밥도 먹을 시간내기가 힘들었는데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수다를 떠니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전공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보고 같이 상의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평소에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데 주마다 한번씩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서로 몰랐던 것에 대해 공유도 하고 질문도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어 여러모로 좋았다. 학교에서 이렇게 스터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장려 및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친구들과 하고 싶다.

## 최영하

태어나서 생전 처음 친구들과 스터디를 해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말로만 들어보던 스터디를 대학 진학 후 하게 됐을 때 내가 진정으로 대학생이 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터디도 스터디지만 친구들과 만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어서 스터디가 마냥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 밤새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던 나는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규칙적인 공부 습관의 중요성을 느꼈다. 내 개인적으로 스터디 만날 때만 공부하고 그 외 시간에는 공부를 안 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아예 손 놓고 공부 안하고 게임을 핀 거에 비하면 진전이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스터디 때의 경험을 살려 현재 계획 중인 아르바이트와 대외활동, 그리고 여행과 더불어 1학기 때 공부한 전공과목을 복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2학기 때도 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싶고, 하게 된다면 2학기 때는 스터디 시간 외에도 틈틈이 공부하는 자세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3. 활동 사진





## 발달해봄#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발달심리학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원: 윤혜영, 유정하(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3월 29일 ~ 2017년 6월 13일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교내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2) 학습 방법

구두 테스트로 매주 퀴즈를 대비하며 모르는 부분은 서로 설명을 해준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다음 퀴즈 대비 용어 공부 / 구두 테스트
2	다음 퀴즈 대비 용어 공부
3	시험 예상문제 정리 후 어려운 부분 검색 후 암기
4	발달심리학 - 강의안 참고 용어 암기하기
5	발달심리학 -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용어들 서로 설명
6	발달심리학 - 퀴즈 대비 용어 외우기
7	발달심리학 - 용어 이해하고 암기하기
8	발달심리학 -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되짚기

| 교과/비교과 스터디 (2017-1) |

2. 학습소모임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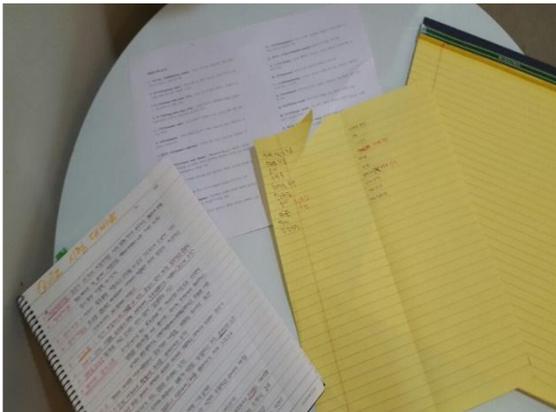
**윤혜영**

지금까지의 스터디 시간들을 통해 조원과 쪽지시험 준비를 열심히 또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스터디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에 대비해 정리하고 외운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각자 더 쉽게 외우는 방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번 스터디 시간이 기말 시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정하**

얼마 전에 지금까지 보았던 발달심리학 용어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조원과 함께 공부했던 시험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이뤄내지 못했을 점수 같은데 조원과 함께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말고사를 함께 준비하며 고된 시험공부가 조금이나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3. 활동 사진





## 열매friends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과목: Nursing process
- 2) 학습 구성원

- (1) 스터디원: 박수빈, 김주혁, 김한나, 채하늘 (간호학과)
-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9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3월 27일 ~ 2017년 6월 11일 (총 19시간)

다. 활동 장소: 교내 학생회관

### 3) 학습 활동

#### (1) 학습 목표

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 (2) 학습 방법

구두 테스트로 매주 퀴즈를 대비하며 모르는 부분은 서로 설명을 해준다.

####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Critical thinking, 스터디에 오기 전 Critical thinking 유인물을 먼저 공부하고 온 후 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2	Nursing assessment, 스터디에 오기 전 Nursing assessment 유인물을 먼저 공부하고 온 후 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3	Nursing process, 스터디에 오기 전 Nursing process 유인물을 먼저 공부하고 온 후 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4	Nursing process, 스터디에 오기 전 Nursing process 유인물을 먼저 공부하고 온 후 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5	Nursing process, 스터디에 오기 전 Nursing process 유인물을 먼저 공부하고 온 후 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6	Nursing process, 수업시간에 준 첫 번째 case에 대해 같이 간호과정을 세워보고 저번 주 weekly homework를 피드백 받은 것을 함께 상의해서 고쳐본다.
7	Nursing process, 이번 주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1조, 2조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보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다.

| 교과/비교과 스터디 (2017-1) |

8	Nursing process, Case scenario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Nursing planning을 세웠다.
9	Nursing process, Case scenario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Nursing diagnosis을 세웠다.

2. 학습소모임 소감

**종합 소감**

Nursing Process수업 첫날, 교수님은 분명 한국어로 우리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자기 소개도 하시고 학생들의 자기소개도 들어주셨다. 그런데 수업을 나간다고 한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영어로 바뀌어버렸다.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학습 자료라도 한글이었으면 그나마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아예 흐름도 찾지 못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다 스터디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격한 호응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수업이 너무 어렵다는 친구가 들어오게 되어서 4명이 되었다. 이미 많이 나가버린 진도를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삼 등분하여 공부해오고 서로에게 설명해주기로 했었다. 그 때 내가 맡은 부분이 Nursing process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었다. Nursing process가 무엇인지, critical thinking은 왜 해야 해야 하는지 써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당연한 이야기들뿐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념들이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스터디 전에 한 번 익히고, 스터디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한번 익히고 혼자 다시 복습을 하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영어라는 이유로 어렵게 받아들인 탓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수업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초기에 이렇게 모두가 나눠서 공부를 해오고 수업형식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비효율적이긴 했다. 서로의 것을 예습해오지 않아서 자기의 공부 내용을 설명할 때 빼고는 거의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스터디 방식을 바꾸기로 하였다. 모두가 같은 부분을 공부해오고 서로 이야기 해볼 만한 내용을 무조건 한 개 이상씩 골라와서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하였다. 한번이라도 읽어본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적이지 않아서 집중도 잘 되었고 진짜로 복습하는 느낌이었다.

만족스러웠던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수업은 CASE를 해석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ase에 따라 대상자를 assessment하고 diagnosis으로 진단명을 결정한 후 long term goal, short term goal을 설정, intervention, evaluation하는 과정이었다. 서로의 케이스가 달랐기 때문에 각자 PPT를 만들어오면 피드백을 해주기로 하였다. 나는 이 과정이 가장 좋았다. 이제까지는 계속을 이론을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실습처럼 내가 생각해서 사정하고 수행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았고 다른 친구들의 진단을 피드백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읽어볼 수 있어서 내 PPT 또한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스터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하니 혼자서 공부할 때 많은 정보들을 머리 속에 마구잡이로 넣는 것이랑은 확실히 달랐다.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서로의 모르는 점을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친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답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내용들이 내 것이 되어있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몰랐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 3. 활동 사진





## Hestia

### 1. 학습소모임 개요

- 1) 활동 과목: 전산회계운용사 및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준비
- 2) 학습 구성원

- (1) 스터디원: 하준호, 김유수, 박태영, 강민수, 이기영, 백종원, 전지운(데이터경영학)
-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7년 4월 12일 ~ 2017년 6월 8일 (총 16시간)

다. 활동 장소: 기숙사

### 3) 학습 활동

#### (1) 학습 목표

회계원리를 공부하고 전산회계 운용사와 경진대회를 준비한다

#### (2) 학습 방법

서로 멘토가 되어 모르는 부분을 잡아 준다.

####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회계원리 이론 학습.
2	전산회계 운용사 3급 1회
3	전산회계 운용사 3급 2회
4	전산회계 운용사 3급 3회
5	전산회계 운용사 2급 1회
6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준비
7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준비
8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준비

## 전체 소감

전산회계 운용사 필기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회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기일 도래 공사채이자 받음 날이 되어서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어려워 보였던 단어를 설명과 함께 이해하니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학습을 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비교과스터디를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맞추기도 힘든 학교생활에서 비교과스터디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경험이고 기회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습니다.



